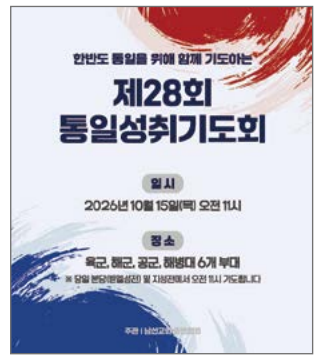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2026 중남미 선교사대회, 멕시코 광림미션센터 봉헌예배

광림의료선교회, 메리다 지역에서 의료선교 진행

광림교회는 중남미 선교사대회와 멕시코 광림미션센터 봉헌예배를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멕시코 메리다에서 진행했다. 이번 선교사대회와 광림미션센터 봉헌예배에는 광림의료선교회원, 자원봉사자, 미용 봉사자, 트리니티찬양단 등 광림교회 성도 54명이 참석했다. 9월 21일부터 3박 4일 동안 열린 중남미 선교사대회는 선교사 60가정 120여 명이 참석하여, 선교지 사역 소개와 현지 신학교와 연계한 교육과 가족별 모임을 열었다. 이번 선교사대회에서는 중남미 각국에서 사역하는 감리회 선교사들이 모여 영적 재충전을 했으며, 광림의료선교회는 선교사 가족들을 위한 건강 강좌와 맞춤형 진료를 통해 척박한 선교 현장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돌보았다.

2024년 멕시코 첫 의료선교에 이어 올해도 메리다 지역 한인 후손과 현지 주민 400여 명을 위한 진료와 미용 봉사, 교회학교를 열

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다. 이를 위해 의료선교회 소속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은 8월 16일 월례회를 시작으로 매주일 네 차례의 기도회를 열었다. 멕시코 알기, 기독교 선교 역사, 한인 이민 역사(애니깽 후손들), 광림교회 해외선교센터 봉헌의 역사 등을 배우고 9월 13일 발대식을 하며 중남미 선교사대회를 준비했다.

9월 24일 봉헌된 멕시코 광림미션센터는 성도들의 헌신으로 봉헌한 광림교회 해외선교센터 중 10번째 나라 13번째 미션센터이다. 멕시코 메리다 지역은 1905년 밋줄을 만드는 용설란(애니깽) 채취를 위해 조선인 노동자들이 도착한 곳이다. 이들은 열악하고 가혹한 노동 환경 중에서도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독립 자금을 보내 애국을 실천했다. 살아남은 한인 선조들은 이후 현지 주민과 결혼하며 현재 한인 후손 5, 6세대들이 살고 있다. 멕시코 광림미션센터는 중남미 북

음화를 위한 전략적 허브이자, 현지 사역자들을 양성하고 선교적 연합을 이루어내는 전초기지이다. 김정석 감독회장은 봉헌식에서 “멕시코 광림미션센터 봉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헌신이 모여 맺어진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 미션센터가 단순히 건물에 그치지 않고, 멕시코와 중남미 전역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치유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

광림미션센터의 향후 선교 목표는 신학 교육을 통한 목회자 양성으로 현지인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십을 체계적으로 교육·훈련하는 일이다. 자립적이고 주도적인 현지 교회 성장을 돕고, 복음이 닿지 않는 곳에 교회를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것이다. 이 선교센터는 예배, 교육, 의료, 봉사, 선교사 훈련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는 종합 공간이다. 또한 한글 교

육과 한국 문화 소개, 선교 활동으로 언어와 문화를 통해 다음 세대와 주민들에게 다가갈 친밀감을 높이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파하는 문화 선교를 펼칠 예정이다. 이번에 봉헌된 멕시코 광림미션센터는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전하며, 메리다에서 시작된 복음의 빛이 중남미 전역으로 함께 뻗어 나가는 새로운 선교의 지평을 열어갈 것이다. (광림뉴스레터 다음 호에는 봉헌예배와 의료선교 화보가 이어진다)

이상희 기자



깨어진 화평의 마음을 회복하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마 18:35)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빛진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용서에 관하여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떤 임금이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는 종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종은 이 빚을 갚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빚을 갚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이를 불쌍히 여겨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함을 받은 이 종이 지나가다 자신에게 일 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일백 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빚을 갚으라 말합니다. 한번만 봐 달라고 하는 자에게 빚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두자 그의 이웃들이 임금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임금은 다시 일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이 되기 위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화목함'일 것입니다. 화목함은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과의 평화로운 관계라고 한다면,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나라와 민족 그리고 자연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가리켜서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든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관계의 여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가 무너지면 그 관계성이 깨어짐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은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됩니다. 이러한 상처가 많은 사람에게는 평화로운 마음과 더불어 행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를 아셨던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그 관계가 복된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기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용서'를 구해야 할 때도 있고 용서를 해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용서함을 받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든지, 용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관계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신 은혜를 누리며 흘려 보내라

인간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용서라는 것이 필요한데, 이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 받은 것을 기억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용



마태복음 18:23~35

23.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그 종이 없으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그 동료가 없으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하고 34.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는 기능과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이 성숙할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인생에 있어서 빛진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큰 사랑을 받고, 큰 용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가득 차도록 흘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차고 넘치게 될 때에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될 때,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게 되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고,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낼 때에

우리 속에 사랑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며 용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둘째, 매일의 삶 속에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용서의 문제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며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결핍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으며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어쩔 수 없이 죄로 인한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 결핍의 문제는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데, 용서를 구해야 할 일들과 용서를 해주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생명력이 사라지고 창조적인 생각이 사라집니다. 더 이상 내 삶을 용기 있게 살아야 할 아무런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

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 참된 기쁨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와 더불어 힘 있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이것을 아셨기에 오늘 우리에게 관계 회복, 즉 용서에 대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살아 내라

예수님은 용서의 문제를 가지고 매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삶을 넘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는 삶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나만의 감격과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화목함의 역사가 내가 속한 관계 안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받은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흘려보낼 때, 거기에 삶의 풍요로움과 더불어 풍성함의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고, 회복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를 넘어 사랑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열여섯 가십니다. 우리의 삶이 용서할 뿐 아니라 사랑하며 모든 사람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독회장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감독회장의 설교는 광림교회 홈페이지(www.klmc.church) 및 유튜브에서 영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광림교회 주일설교를 팟캐스트를 통해 청취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의 기쁨 -2



현대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유혹은 예배의 주체를 ‘하나님’에서 ‘인간의 만족과 편리’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나 개인 경건 생활이 지닌 유익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공적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진정한 예배는 나의 취향, 나의 위로, 혹은 내가 선호하는 분위기를 찾아 스스로 만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는 ‘한자리에 함께 모임’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같은 말씀을 듣는 것은 같은 감격과 은혜를 모든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공동체적 사건입니다.

예배는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나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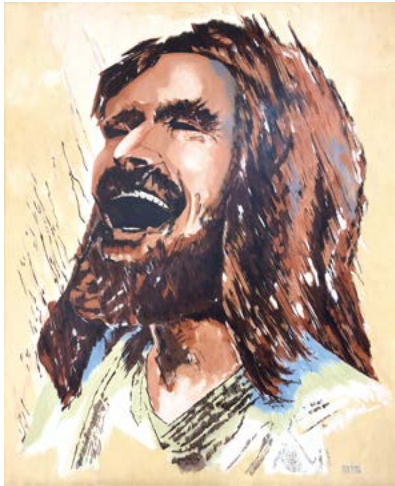
히려 생각과 성향이 다른 이웃, 때로는 허물과 연약함을 지닌 지체들과 함께 한 성전에 앉아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안에서 한 형제자매 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연습하고 실천하는 영적 훈련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기독교 리서치 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 비해 정기적으로 공적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성경 통독, 기도 생활, 전도 등 전반적인 신앙 지표와 영적 활력에서 훨씬 더 건강한 양상을 보인다고 합니다.

개인이 고립되어 신앙을 유지할 때는 쉽게 타협하고 영적으로 침체되기 쉽지만, 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드리는 예배는 함께 예배드리는데 이들에게 생동감 넘치는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이 공동체적 고백과 뜨거운 결단은 개인의 내면에 머물지 않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화와 선교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편리함의 유혹을 끊어내고 다시 생명의 제단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침체된 개인과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5)

목회선교지원실



다시 예배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부흥으로

전교인 추계산상기도회

일시 2026년 10월 10일(토) 오후 3시 30분~5시 30분

장소 광림수도원

주관 | 남선교회총연합회

포토 뉴스



2026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나는 내 백성의 하나님이 되리라” (겔 11:20)를 주제로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진행되고 있다.



제28회 통일성취기도회 한반도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통일성취기도회가 남선교회 주관으로 10월 15일(목) 오전 11시에 육·해·공·해병대 6개 부대에서 열린다.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 추석을 맞아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가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 B홀에서 진행된다.

감독회장 동정



- 9/15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축사
- 9/16~19 감리회 신임목사 영국 순례
- 9/20 예정통합 111회 총회장 취임 예배 축도
- 9/21~26 멕시코 광림미션센터 봉헌 중남미 선교사대회&의료선교
- 9/27 외국인제자훈련센터 한가위 잔치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church

신임 목회자들, 영국 웨슬리 영성 순례

기독교대한감리회 목회자들 브리스톨·런던·옥스퍼드 등 존 웨슬리 발자취 따라 순례



세인트폴 대성당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김정석)는 신임 목회자 중 각 연회별로 선발된 24명의 목사들과 함께 지난 2026년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영국 웨슬리 순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다. 이번 순례는 감리교회의 뿌리이자 존 웨슬리의 유산이 남아있는 브리스톨, 런던, 옥스퍼드 등의 주요 유적지를 방문하여 존 웨슬리의 신학과 영성, 그리고 목회 철학을 깊이 체득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일정은 광림교회가 그동안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수많은 현지 기관들과 쌓아온 오랜 교류와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었기에 더욱 깊이 있고 뜻깊은 방문이 가능했다.

순례단은 웨슬리 형제가 수학한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를 방문했다. 이어 C.S. 루이스가 영문학 펠로우로 활동

했던 유서 깊은 모들렌 칼리지(Magdalen College)를 찾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 조각을 비롯해 11세기와 16세기 성경 등 진귀한 역사 자료들을 관람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옥스퍼드대 영문학 교수이자 C.S. 루이스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사이먼 호로빈(Simon Horobin) 교수가 직접 참여해 목회자들과 깊이 있는 대화의 시간을 나눴다.



모들렌 칼리지

아울러 영국 감리교회 목회자이자 교육자인 해리스 맨체스터 칼리지의 랄프 월러(Sir Ralph Waller) 경은 일행을 초청해 오찬을 준비해 줬고 따뜻한 환영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랄프 월러 경은 한국 감리교회와 함께 일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는 한편, 옥스퍼드에 새로운 신학교를 세워 영국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내겠다는 비전과 기쁜 소식을 나눴다. 이어 신학 전문 도서관이 위치한 안톤 매너(Yarnton Manor)를 방문해 학문적 영감을 더했다.

또한, 브리스톨에서는 감리교회 최초의 건물인 '뉴룸'(New Room)을 방문, 초기 감리교 운동의 숨결을 되짚었다. 또한 7,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사·작곡한 뛰어난 음악가이자 시인인 찰스 웨슬리가 살던 집을 찾아 그가 감당했던 영적 사역의 의미를 되새겼다.

런던에서는 존 웨슬리 사후 100주년을 기념하여 건립된 감리회중앙회관(Methodist Central Hall)을 찾았다. 이곳은 역사적인 제1차 UN 총회가 개최되었던 장소이기도 하다. 이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드려진 이븐송(Evensong) 예배에 참석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

마지막 날에는 세인트폴 대성당을 방문한 데 이어, 웨슬리 채플의 감리사이자 2027년 영국감리교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제니퍼 스미스(Jennifer Smith) 목사의 인도를 받아 존 웨슬리의 회심 과정을 따라 웨슬리 채플까지 순례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제니퍼 스미스 목사는 존 웨슬리가 실제로 신었던 신발을 직접 공개하며, "참석한 모든 목회자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번 순례를 이끈 김정석 감독회장은 "신임 목회자들과 여정을 함께하며 웨슬리의 생애와 영성을 깊이 배우고 고민할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훌륭한 목회자들이 감리교단 안에 더욱 많아져 한국 교회의 미래를 든든히 세워가기를 소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영국 웨슬리 순례는 감리교회의 차세대 리더십들이 초심을 다지고, 광림교회가 다져온 국제적 교류의 지평 위에서 웨슬리의 뜨거웠던 복음 전파의 열정과 영성을 오늘날의 목회 현장에 되살리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권순정 목사(목회선교지원실)



웨슬리 채플



안톤 매너

청년부

다시 이어진 쉼키나워십, 말씀과 기도로 한자리에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나사렛성전에서 열려

여름 국내의 선교 일정으로 잠시 쉬어 갔던 광림교회 청년부의 주중예배 '쉼키나워십'이 지난 9월 3일(목) 오후 8시 나사렛성전에서 다시 시작됐다. 선교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섬김을 이어 온 청년들은 다시 예배의 자리로 모여 찬양과 말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로운 하반기 예배의 시작을 열었다.

쉼키나워십은 광림교회 청년들이 주중에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마련된 예배이다. 이는 자발적인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2005년부터 청년부 공식 집회로 세워졌으며, 오랜 시간 매주 목요일 청년들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지켜 왔다.

찬양과 말씀, 기도를 중심으로 드러지는 쉼키나워십은 주일예배 이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진 청년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한 주의 삶을 돌아보고 말씀을 채우며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다. 코로나로 대면 예배가 어려웠던 시기에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어 가며 나라와 민족, 교회와 공동체, 개인과 가정을 위해 기도해 왔다.

또한 쉼키나워십 사역팀은 매주 준비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길 뿐 아니라 편곡한 찬송가

와 자작곡을 통해 청년들의 신앙고백을 담은 새로운 찬양을 나누어 왔다. 이를 통해 쉼키나워십은 단순한 주중 집회를 넘어 청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다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영적 공동체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하반기 쉼키나워십 역시 청년들의 삶과 맞닿은 말씀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9월 3일부터는 'KINGDOM100-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선 100명의 사람들'을 주제로, 성경 속 인물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 청년들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세워 가도록 돕고 있다. 성경 속 인물들의 삶과 믿음을 살펴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이끄시고 사용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다.

매주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청년들은 성경 속 인물들의 성공뿐 아니라 연약함과 실패, 회복의 과정까지 자신의 삶과 비추어 보며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세워 가고 있다.

바쁜 일상과 여러 고민 속에서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각

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이어갈 힘을 얻는 중이다.

앞으로도 쉼키나워십은 매주 목요일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의 자리를 이어 간다.

쉼키나워십을 통해 더 많은 청년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말씀 안에서 삶의 방향과 힘을 얻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장희정 간사(청년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9월 13일 주일, 3부 예배에서 김정석 감독회장의 집례로 13명이 유아세례를 받았다.



조유엘, (부)조정현, (모)황유나



손지아, (부)손영진, (모)탁지영



백초하, (부)백종홍, (모)변진솔



김이준, (부)김민호, (모)정희정



신로하, (부)신환률, (모)박창희



신라희, (부)신환률, (모)박창희



김시아, (부)김홍탁, (모)배경은



이서이, (부)이재학, (모)조유진



조이현, (부)조승동, (모)조예은



최유주, (부)최병재, (모)김소영



임채은, (부)임성율, (모)정수인



이정원, (부)이웅석, (모)이성민



홍지호, (부)홍승주, (모)구윤희



목회현장

하나님의 시선에서



주일 아침이 되면 교회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로 분주함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의 방송을 담당하는 방송문화선교위원회입니다. 방송문화선교위원회는 광림방송 KLB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방송 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아침 6시가 되면, 직원들은 방송실에 설치된 모든 설비의 전원을 올리며, 오늘 하루도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드러지기를 기도합니다. 전날 세팅했던 것들을 점검하며, 강

단에 설치된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방송을 위한 라인들은 잘 정돈이 되어있는지, 모든 카메라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며, 곧이어 드러질 거룩한 예배를 준비합니다.

본당에 성도들이 하나 둘 자리에 앉기 시작하며 예배가 시작할 때가 되면, 모두가 긴장한 모습으로 오르간 연주를 기다립니다. 오르간 연주가 시작되면, 방송실의 직원들과 봉사자들은 제각기 맡은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당을 환하게 비추는 조명을, 누군가는 은혜로운 앵글을 담은 카메라를, 누군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전달하는 음향을, 누군가는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는 시스템을 담당하며, 모든 예배가 방송사고 없이 은혜롭게 드러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역할에 임합니다.

어떤 봉사자는 영종도에서 이른 새벽 첫 기차를 타고 와 섬기고, 어떤 봉사자는 섬김이 끝나면 바로 교회학교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려 걸음을 재촉합니다. 또 어떤 봉사자는 오전의 모든 섬김이 끝나고 나서야 자신의 예

배를 드리기 위해 예배당 좌석에 앉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방송 봉사자로 섬긴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꾸준하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봉사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가끔 카메라를 찍다 보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 앵글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앵글을 통해 예배당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봉사자의 고백은 이른 새벽 걸음을 재촉하며, 아직 성전의 한기가 남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고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봉사자들이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묵묵히 감당하는 이유를 깨닫게 했습니다. 바로 이 방송 봉사를 통해 하

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예배의 방송을 담당하며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당에 사람이 많이 있어서 어떤 앵글을 잡아도 그림이 잘나옵니다!” 누군가는 간절한 마음으로 가슴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이,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리는 찬송의 모습이, 누군가는 예배당에 앉아 기쁨과 감격으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오늘도 방송문화선교위원회의 봉사자들은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을 가득 담은 예배를 준비합니다.

황지수 목사(방송문화선교위원회)

10선교구

예배 회복 153 캠페인



10선교구는 9월 16일, 강화 기독교역사기념관에서 일일기도회를 열고, 복음의 초심을 다지는 ‘예배 회복 153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강화도 지역의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운동의 역사를 돌아보고, 이름 없이 헌신한 초기 선교사들과 성도들의 신앙 유산을 본받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함께 참석한 10선교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한 삶의 변화가 강력한 전도로 이어졌다는 점에 주목하며, 옛 선조들의 신앙의 모습과 정신을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전개된 ‘예배 회복 153 캠페인’은 요한 복음 21장 11절을 바탕으로, 순종을 통한 참된 회복과 사명 완수를 목표로 합니다. 이 캠페인의 3대 실천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숫자 ‘1’은 ‘내가 먼저 한 명의 참된 예

배자로 바로 서기’를 뜻합니다. 디베라 호숫가의 회복은 대규모 집단 운동이 아닌, 자신의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한 제자 개인의 결단에서 시작되었듯, 예배 회복의 출발점 역시 성도 개개인의 변화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설 때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둘째, 숫자 ‘5’는 ‘매일 나의 이웃 다섯 명을 위해 중보기도 하기’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그물을 끌어 올려 153마리의 물고기를 낚았던 것처럼, 매일 주변 이웃 5명을 떠올리며 기도하고 안부를 전할 때 닫힌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숫자 ‘3’은 ‘한 주간 세 명에게 예배의 자리를 권면하고 전도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던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듯,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 매주 3명에게 예배의 자리를 권면함으로써 공동체를 튼튼한 사랑의 울타리로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3명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고 전도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신앙의 자유와 은혜는 선조들의 핏방울 같은 헌신 위에 세워진 거룩한 열매입니다. 10선교구 성도들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거저 받은 은혜를 세상을 향해 다시 던지며, 삶의 자리마다 참된 예배와 영혼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일궈 나갈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도신우 목사(10선교구)

3선교구

하나데이, 은혜로운 단합의 시간



선교구 가족들이 모두 함께 하는 ‘3선교구 하나데이’ 행사가 9월 19일(토) 오전 9시부터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120여 명의 3선교구 가족들은 이날 가을의 정취가 느껴지는 탁 트인 자연 속에 한자리에 모여 친목과 즐거운 단합의 시간을 가졌다. 11시부터 진행되는 예배에 앞서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하는 노래 시간을 통해 흥겨운 분위기를 이어갔으며, 특히 퀴즈쇼를 진행하면서 전체 참석자가 스마트폰으로 문제를 푸는 색다른 경험을 갖기도 했다.

예배 말씀을 전한 김현우 목사는 ‘형제의 아름다운 동거’(시 133:1~3)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혼자 잘 되는 것보다 형제가 연합하여 좋은 결실을 맺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선교구 식구들은 하는 일이나 각자의 형편과 처지가 다르지만 이렇게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되고, 다 같이 영광을 올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함께 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고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선교구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를 위해 선교구 임원들이 아침 일

찍부터 와서 준비한 숯불 바비큐를 들며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사 후에는 속회나 선교구별로 모임을 하거나 삼삼오오 모여 친목의 자리를 갖기도 했다.

특히 젊은 세대인 스테반연합회는 따로 모임을 가졌으며, 어린 자녀들은 다른 공간에서 게임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시 세미나실로 모인 참석자들은 교구에서 준비한 경품을 전달받는 행운의 추첨 시간과 함께 즐거움을 나뉘 가지면서 ‘하나데이’ 모임을 마무리했다.

구본신 권사(3선교구 연합회장)는 “선교구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 그동안 준비했던 과정에 대한 보람과 감사를 느낍니다. 몇 년 전부터 3선교구의 자랑처럼 여겨지는 ‘하나데이’는 선교구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날 이 자리에서만만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즐기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 이후에도 화합된 모습이 이어지고 모두가 사랑하는 3선교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득섭 기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하는 1교구 남성 속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4-25)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되었던 1교구 남성 속회가 다시 활성화되는 과정 속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었다. 아직 사회적인 거리두기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던 2022년, 조승현 권사를 속장으로 하는 40대 전후의 남성으로 구성된 젊은 속회를 택하여 주심이 바로 그것이다. 시작되는 과

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낙담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추진한 결과 모든 현실의 벽을 허물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였다. 무엇보다도 모임 장소가 마땅치 않았던 때에 한 속도원이 사무 공간을 흔쾌히 오픈하여 주셔서 메인 베이스캠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후 속회 장소를 여러 곳으로 넓혀갈 수 있었다.

속도원들 서로가 잘 알지 못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공동체의 영적인 나눔이 갈급했던 속도원들이 점차 속회예배 속에 스며들며 모

임을 사모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속에서 힘써 중보하는 단단한 속회로 거듭나게 되었다. 아울러 이 속회에서 은혜를 나누던 젊은 지체들은 1교구 스테반선교회의 부흥을 주도하였으며, 속회 모임의 활성화가 우리 교회의 차세대 일꾼 양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교구 연합 속회는 남성 속회의 활성화가 1교구 전체로 확대되길 소망하며 작년 말부터 기획되었다. 디지털화가 가속되며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날로 치열해지는 생업전선의 분주함으로 인해 공동체 모임보다는 개인 신앙에 보다 더 집중하는 트렌드 속에서, 서로가 돌아보아 지속적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자생적인 속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이는 남성 연합 속회라는 마중물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첫 연합속회는 2월의 어느 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축제와 같이 시작되었다. 교회동장로 가정에서 부부 및 아이들과 온가족이

함께 참여하며, 신영진 목사의 ‘마침내 복 있는 삶이 시작되다’라는 메시지로 은혜를 나누었다.

5월에는 김도옥 장로 가정에서 귀한 속회 말씀으로 영을 풍성하게 하고, 2부 순서에서는 차려 주신 맛있는 애찬으로 기쁨 속에 교제를 나눴다.

이후 약 두 달에 한 번을 주기로 1교구 남성 연합 속회는 계속되고 있다. 인도자만 속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역할을 부여받아 모두가 참여하는 속회 예배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합 속회는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몸소 체험하는 훈련소와 같은 곳이 되었다.

연합 속회에서 훈련받은 속장 및 속도원들이 각자의 지구로, 속회로 돌아가 더욱 초대교회와 같이 강한 공동체 신앙을 든든히 세워가고 있다.

임민재 권사(1교구)

가장 어린 예배자를 품는 손길, 영아부

영아교육위원회 위원장 - 김숙남 권사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혼자 앉기도 어려운 아기에게 예배는 어떤 의미일까. 김숙남 권사는 그 답을 18년 동안 영아부에서 지켜왔다. 처음에는 울며 들어오던 아기가 어느새 담임선생님의 얼굴부터 찾고, 돌아다니던 아이가 예배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 집에 돌아가 ‘하멘’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며 가정도 아이의 변화를 발견한다.

2008년 교사로 시작해 2014년부터 부장을 맡았고, 올해로 2년째 영아교육위원회를 이끌고 있는 김숙남 권사에게 가장 어린 예배자들과 함께한 시간을 들어봤다.

영아부와와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2008년 남편이 기드온 차량 선교를 하면서

1부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예배 후 봉사할 곳을 찾다가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아부에 오게 됐습니다. 원래 아기들을 좋아하기도 했고 몇 년을 해야겠다는 계획 없이 시작했는데 어느새 오랜 시간이 흘렀네요. 2014년 부장을 맡게 됐고, 지난해부터는 위원장으로 영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맡겨주신 자리에서 순종하자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여기까지 왔습니다.

영아부 아이들을 보며 가장 놀라운 점은?
아기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영아부가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떨어져 울던 아기도 1~2주

가 지나면 담임선생님을 알아보고 먼저 얼굴을 찾아요. 아무것도 모를 것 같지만 아기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던 아이도 어느새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따라 합니다. 집에서도 ‘하멘’을 하고 기도하거나 찬양을 부른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어린 시기부터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영아부 교사들의 섬김은 조금 특별할 것 같습니다

영아부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체력도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아기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어 거의 일대일로 돌봐야 하죠. 저도 젊었을 때 아기를 안고 달래다 보면 예배 후 온몸이 아팠던 기억이 있어 지금 선생님들의 수고를 더 잘 압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켰을 분부터 70세에 처음 봉사를 시작한 분까지 모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계세요. 젊은 교사의 힘과 연륜 있는 교사의 경험이 어우러져 아기 한 명 한 명을 품어주는 것이 영아부의 큰 힘입니다.

한 가정의 신앙을 세우는데 영아부가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

매주 선생님들이 자모실을 찾아가 영아부를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아기가 조금 더 크면 보내겠습니다”라고 하시던 부모님도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다 보면 조금씩 마음을 열고 아이를 맡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부모님은 자모실이 아니라 본당에서 대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죠. 특별히 기억나는 쌍둥이 가정도 그렇게 만났습니다. 자모실에서 영아부를 소개한 것이 인연이 돼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에 참여했고, 이후 영아부에 정착하면서 가족도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아기를 품어주는 일이 부모님에게는 온전히 예배드릴 시간을 만들어주고, 그것이 한 가정의 신앙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 영아부를 섬기는 보람을 느낍니다.

영아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가장 큰 기도 제목은 함께 헌신할 교사들의 지원입니다.

현재 1부에는 약 20명, 2부에는 40~50명의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는데 거의 일대일 돌봄이 필요한 만큼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해요. 오랫동안 사명감을 가지고 자리를 지켜주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앞으로 젊은 교사들도 많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때도 문을 닫지 않고 여름성경학교를 이어왔는데, 선생님들이 아기와 가정을 위해 직접 음식을 준비하고 한마음으로 섬겨주셨어요.

앞으로도 여러 세대의 교사들이 함께 아이들을 품으며 가장 어린 시기부터 예배와 찬양을 배우는 영아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혜선 기자

제7회 광림 한마음

워킹
챌린지

2026년 10월 3일(토)
광림세미나하우스

행사일정

- 출발 교구별 버스로 이동
- 9:00 집결(광림세미나하우스)
- 9:00 ~ 9:30 예배
- 10:00 ~ 12:30 ... 걷기(A코스, B코스)
- 12:30 ~ 13:30 ... 중식 및 보물찾기
- 13:30 ~ 13:40 ... 새신자 환영
- 13:40 ~ 15:30 ... 오프닝무대 / 레크리에이션
경품추첨 / 보물찾기 선물 증정
- 15:40 폐회 및 출발



주관 광림 실업인선교회
후원 장로회, 남선교회총연합회, 여선교회총연합회

